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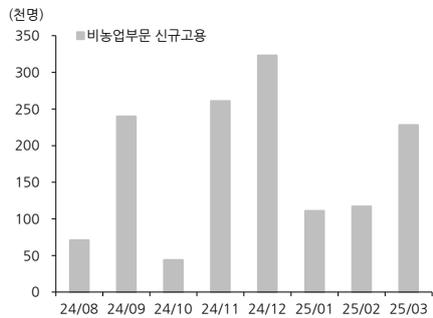
Macro Review

3월 미국 고용: 침체 신호 부재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주요 데이터 및 차트]

3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22.8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완만하게 증가 중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월 미국 고용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됐고, 노동시장 신규진입 인구도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은 점차 약해지겠지만, 늘어나는 구직 희망 인구를 감안하면 둔화 폭은 완만할 전망이다.

신규고용 및 실업률 예상치 상회

3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22.8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 의료서비스(+7.8만 명) 고용이 늘어난 가운데, 여가/숙박(+4.3만 명), 소매업(+2.4만 명) 등의 고용도 반등. 반면 연방정부(-0.4만 명) 고용은 2개월 연속 감소

실업률은 4.2%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2.5%로 0.1%p 상승. 자발적 실업 및 해고당한 인구는 줄었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음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3.8%) 상승. 서비스업(+0.2%) 중심으로 임금 상승 압력 둔화. 다만 내구재 제조업, 소매업, 여가/숙박 등 일부 산업의 임금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편

급격한 고용 위축을 걱정할 필요는 없음

고용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영구 및 장기(27주 이상) 실업자, 파트타임 밖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취업자가 점차 늘고 있음. 임시 파견직 고용도 3개월 연속 감소 중.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인원 감축 기조와 무역분쟁에 따른 제조업 업황 우려 등을 감안하면 구인수요는 점차 약해질 것

다만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하며, 노동시장 신규진입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실업기간 중간값(9.8주)도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노동시장 초과수요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침체 신호를 찾기는 어려움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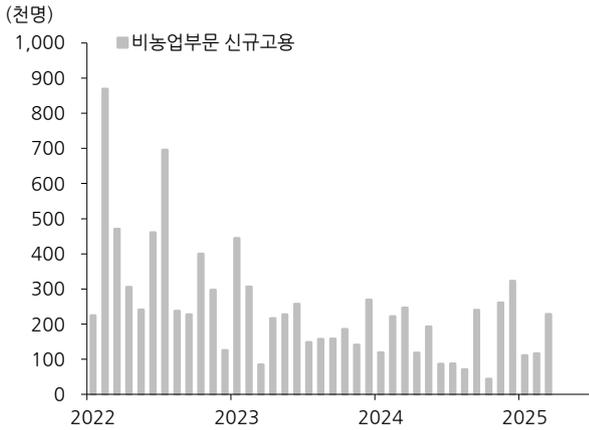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비농업 신규고용	193	87	88	71	240	44	261	323	111	117	228(△)
민간	160	66	40	33	208	-1	244	287	79	116	209(△)
상품	11	4	12	-18	32	-50	28	4	-11	26	12(▽)
서비스	149	62	28	51	176	49	216	283	90	90	197(△)
정부	33	21	48	38	32	45	17	36	32	1	19(△)
실업률	4.0	4.1	4.2	4.2	4.1	4.1	4.2	4.1	4.0	4.1	4.2(△)
경제활동참가율	62.6	62.6	62.7	62.7	62.7	62.5	62.5	62.5	62.6	62.4	62.5(△)
고용률	60.1	60.0	60.0	60.0	60.1	60.0	59.8	60.0	60.1	59.9	59.9(-)
시간당 평균임금	4.1	3.9	3.6	4.0	3.9	4.1	4.2	4.0	3.9	4.0	3.8(▽)
제조업	5.1	5.0	4.6	4.9	4.6	4.6	4.4	4.0	4.2	4.5	4.6(△)
서비스업	3.9	3.7	3.5	3.8	3.8	4.0	4.1	3.9	3.9	3.9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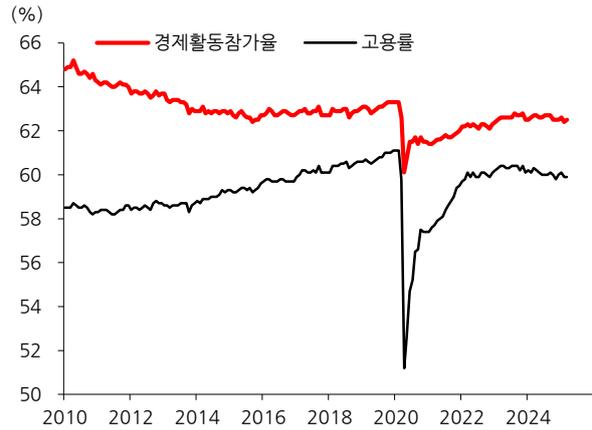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22.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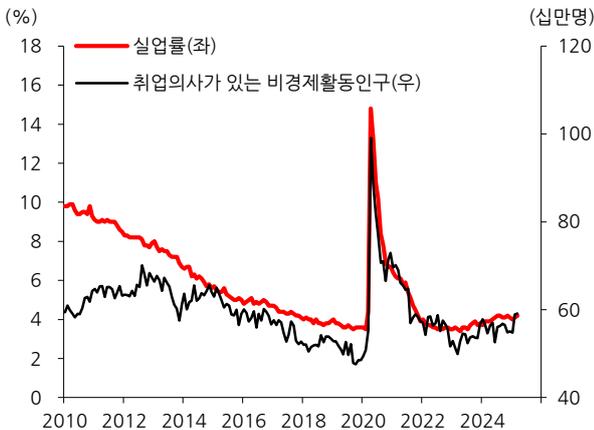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실업률도 2개월 연속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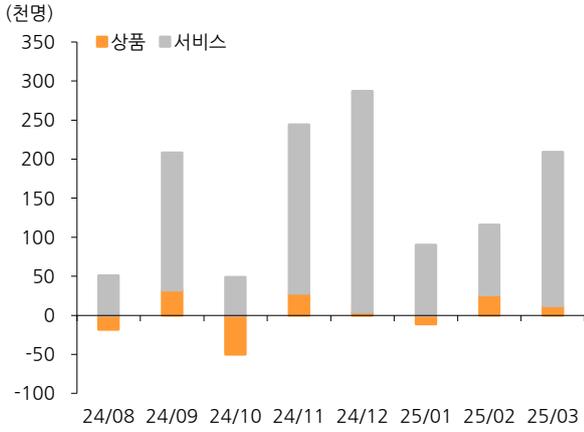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임금 상승 압력은 점차 둔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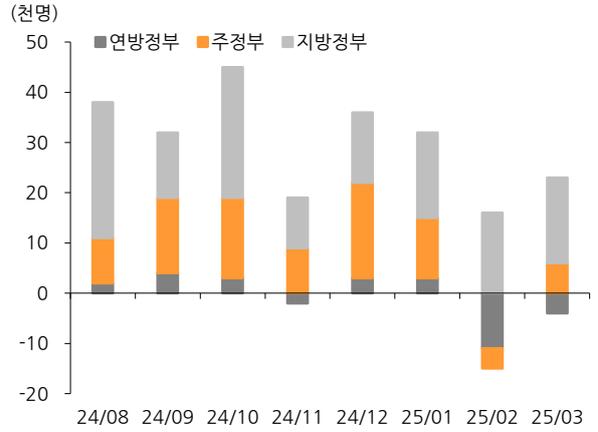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서비스 생산 부문의 신규고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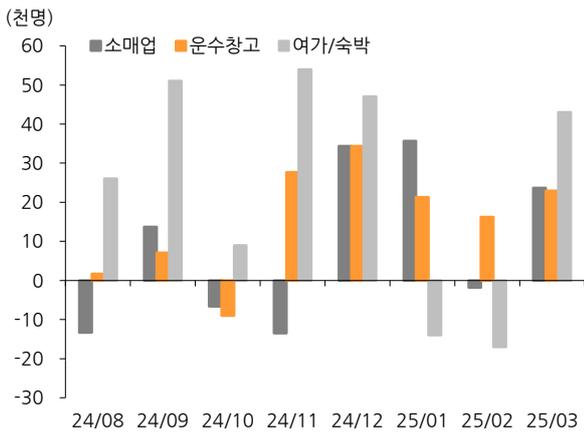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연방정부 고용은 2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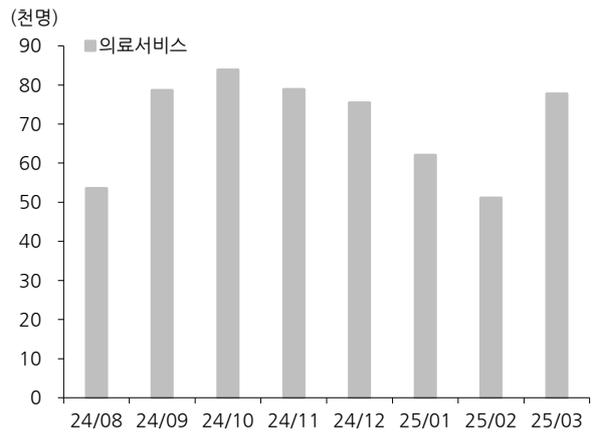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요 서비스업 고용 양호한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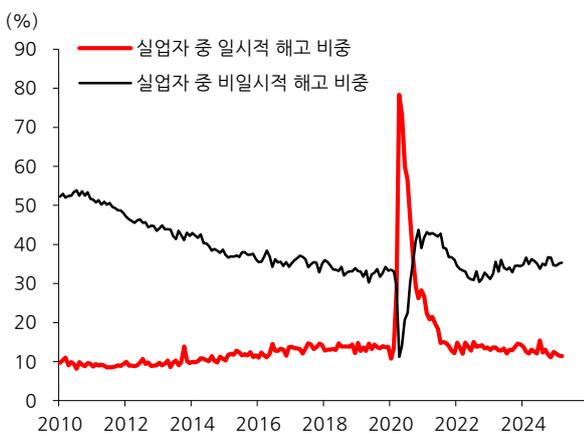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의료서비스 신규고용도 크게 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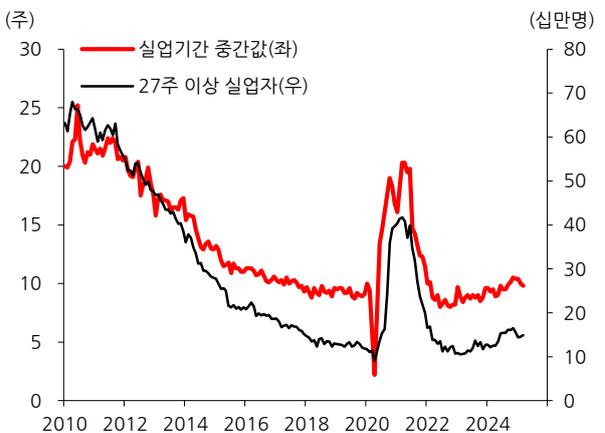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비밀시적 실업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실업기간 중간값은 6개월만에 10주 하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